

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	보 도 참 고 자 료			
배 포 일	2020. 1. 27.(월) / (총 9매)			
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	과 장	박 혜 경	전 화	043-719-9050
	담 당 자	이 동 우		043-719-9064
검역지원과	과 장	김 금 찬		043-719-9200
	담 당 자	손 태 종		043-719-9210
위기분석국제협력과	과 장	이 선 규		043-719-7550
	담 당 자	주 재 신		043-719-7552
신종감염병대응과	과 장	곽 진		043-719-9100
	담 당 자	김 성 순		043-719-9101
감염병진단관리과	과 장	이 상 원		043-719-7840
	담 당 자	김 갑 정		043-719-7848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

- 중국 우한시로부터 입국한 55세 한국인 남성 네 번째 확진환자 확인 -

□ 질병관리본부(본부장 정은경)는 1월 27일 오전 국내 네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(55세 남자, 한국인)를 확인했다고 밝혔다.

○ 해당 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방문하였다가 1월 20일 귀국하였고 1월 21일 감기 증세로 국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 받았다고 한다.

- 1월 25일 고열(38℃)과 근육통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재내원, 보건소 신고 후 능동감시를 실시하던 중,

- 1월 26일 근육통 악화 등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폐렴 진단을 받고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,
- 같은 날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(분당 서울대병원) 으로 격리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였고,
- 1월 27일 오전 검사 결과 국내 네 번째 감염 환자로 확진되었다.

-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환자의 이동 동선 등을 따라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므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로 추가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.

□ 한편, 세 번째 확진자(54세 남자, 한국인)의 접촉자 및 이동경로 등도 파악하였다.

- 접촉자는 현재까지 74명이 확인되었고, 이 중 호텔 종사자 중 1명이 유증상자로 확인되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격리조치 되었으나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어 격리해제 되었으며, 나머지 접촉자는 증상이 없어 자가격리(가족, 동행한 지인 등 14명) 및 능동감시를 실시중이다.
- 환자는 증상 발현 후 의료기관 방문, 호텔 체류 등이 확인되었고, 장시간 체류한 시설인 의료기관과 호텔은 모두 환경소독을 완료하였으며, 식당 등은 설 연휴기간으로 휴업한 곳이 많아 순차적으로 방역 조치가 진행중이다. (붙임2 참조)

□ 국내 확진자는 금일 추가 확인된 환자를 포함하여 현재 4명이다.

- 현재까지 확진자를 제외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57명이며
검사중인 1명 외 56명은 검사 음성으로 격리해제* 되었다.

* 세 번째 환자의 접촉자 중 유증상자였던 1인도 포함

□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입국 후 증상 발생하는 사례들은 관할 보건소나
1339 신고를 거쳐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
격리조치 되고 있다고 밝히고,

- 중국 우한시 등 후베이성 방문 이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
발생하면, 대외 활동을 최소화하고 보건소나 1339 신고를 거쳐
의료기관을 방문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.

<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국민 행동수칙 >

-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(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)
- 후베이성 등 중국 방문 후 의심증상 발생 시 관할보건소 또는 1339 문의
- 중국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기

- 또한, 의료기관에게도 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의료기관
행동수칙”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.

<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>

- 호흡기 질환자 진료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
-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선별진료 철저 (여행력 문진 및 DUR 활용 등)
-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로 신고

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,
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<붙임> 1.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
2. 세 번째 환자의 이동 경로 등
3.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
4. ‘여행력 알리기’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
5. 감염병 예방수칙

붙임1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

□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 (1.27일 10시 기준)

구분	확진 환자 ¹⁾	조사대상 유증상자 ²⁾		
		계	격리중	격리해제
누계 (1.3~27)	4	57	1	56

1) 임상증상, 여행력, 검사결과를 종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진된 자

2) 임상증상, 여행력 등을 고려하여 격리조치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증상자
(의사환자를 포함)

붙임2

세 번째 환자의 이동 경로 등

- (1월 22일) 개인 렌터카를 이용하였으며, 오후 1시경 서울 강남구 소재 의료기관(글로벌 성형외과)에서 치료를 받는 지인의 진료에 동행하였으며, 이후 인근 식당을 이용한 후, 서울 강남구 소재 호텔(호텔뉴브)에 투숙
 - (1월 23일) 점심때쯤 한강에 산책을 나가 한강변 편의점 (GS 한강잠원 1호점), 이후 강남구 역삼동과 대치동 일대 음식점을 이용
 - (1월 24일) 점심때쯤 다시 서울 소재 의료기관 (글로벌 성형외과) 지인 진료에 재동행하였고, 오후에는 일산 소재 음식점·카페 등을 이용하였으며, 저녁에는 일산 모친 자택에 체류
 - (1월 25일) 오전 일산 소재 모친 자택에서 외출하지 않고 1339에 신고하여, 보건소 구급차를 통해 고양시 덕양구 소재 명지병원으로 이송, 격리
- ※ 의료기관, 호텔, 음식점 등에 대한 접촉자 조사 및 소독조치를 완료하고 접촉자 74명에게는 자가격리·능동감시 여부 통보조치 완료. 역학조사가 현재 진행중으로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은 완료되는 데로 공개 예정.

본 정보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의2(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(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)제1항에 의거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, 이동수단,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정한 규정에 따라 공개됩니다.

본 정보의 당사자는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,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따라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.

붙임3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

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

감염병 예방 수칙



손바닥, 손톱 밑
꼼꼼하게 손씻기!



기침할 땐
옷소매로 가리기!



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
의료기관 방문 시
반드시 마스크 착용



의료기관 방문 시
의료진에게
해외여행력 알리기



감염병 의심될 땐
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상담

중국 유행지역 여행 시 주의사항



동물(가금류 포함) 접촉 금지



현지 시장 및 의료기관 방문 자제



발열, 호흡기 증상자(기침, 호흡곤란 등)
접촉 금지



· 기침 시 마스크 착용
· 손씻기, 기침예절 등
개인위생 수칙 준수



· 중국 유행지역 여행 후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
·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
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 상담

*중국 유행지역 정보 확인: 해외감염병 NOW 에서!

발행일: 2020. 1. 23

붙임4

‘여행력 알리기’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

질병관리본부 KCDC

1339
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당신의 여행력
모두의 행복을 위해 **당당히**
말해주세요!

해외여행 후, 의료기관 및 보건소 진료시
의사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
감염병을 신속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.

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,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꼭꼭꼭!!!



*해외여행력이란?
여행, 출장 등의 목적으로
해외를 방문한 경험

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.hira.or.kr

해외감염병NOW www.해외감염병now.kr

붙임5

감염병 예방수칙



비누로 꼼꼼하게
30초 이상

[올바른 손씻기 6단계]



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
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기침할 때 옷소매로
입과 코를 가리고!



[올바른 기침예절]



발행일 2019.11.5.